

1.

생명 존중은 단어 그대로 인간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. 생명 존중에 관해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생각이 났다.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인 것 같다. 사회의 자살률 수치는 그 사회에서 꽤 중요한 지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학과 사회를 융합하여 활동을 결정하였다.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 등 시도별 면적과 자살자 수를 조사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일차함수의 그래프로 범위를 안전, 위험 심각으로 나누고 각각 초록색, 노란색, 빨간색으로 그 심각함을 나타내었다. 또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두 지역과 자살률이 가장 낮은 두 지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.

2.

①범위의 시도별 지역으로는 충남, 대전, 전북, 경남, 전남, 제주가 있어서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②범위에는 광주, 대전, 세종, 대구, 울산이 있으므로 노란색으로 칠해지고 ③범위에서는 서울, 부산, 인천, 경기지역이 빨간색 지역으로 칠해진다. x 축은 면적(km^2)이며 y 축이 자살한 사람의 수이다. 시도별의 면적과 자살 수를 조사하여 좌표평면에 표시하면 어떤 범위에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. 이 문제는 일차함수를 이용하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수학을 이용하였다.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자살과 관련된 자료를 필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생명 존중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.

3.

이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. 보건복지부 발간한 '2022년 자살 예방백서'를 찾아보았다.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다운받고 점선을 실선으로 경계를 그은 후 심각성에 따라 초록, 노랑, 빨강으로 칠하면서 하나 깨달은 점이 있다. 서울, 대구, 울산처럼 시가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그 뒤로는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광주나 울산지역은 위험으로 분류되어서 놀랐고 우리나라 자살에 대한 심각성과 이해도가 더 정확해진 것 같아 좋았다.

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집중 상담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알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지도가 색칠해졌는지 궁금해졌다. 그래서 이번엔 사회적인 관점으로 자살률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조사해보았다. 그 결과 광역별 대중 소기업 지역별 분포 비율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서울, 부산처럼 빨강으로 칠해진 지역에 분포 비율이 높았고 초록색으로 칠해진 강원 충북에는 비율이 낮았다. 이로써 높은 취업 경쟁 강도가 자살 원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입시 경쟁의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지역이 되었다고 분석하게 되었다. 이번 활동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심각성을 구분하는 일차함수를 내 임의로 설정하였다는 것이 아쉽다.

4. 이차함수가 가장 많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느꼈다.

이차함수를 설명하면서 이차함수의 여러 개념 설명이 유연하지 못한것을 보면서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.(유연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)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해를 함.

배구 언더토스를 할때의 배구공의 궤적을 이차함수를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만들어 봄

문제와 관련된 조건을 확실하게 적는 것이 어려웠고 참신한 유형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. 그래도 활동 이후로 몇 가지 더 수학으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예시들을 찾아서 신기했다. 예시)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상황을 이차함수 문제로 내기